

## 사무엘상 29.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 (삼상 27 장 1-12 절)

### 들어가기

지난 시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한번 더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한번 더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은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였고, 스스로 다윗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불안한 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드로 망명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임시 거처로 얻었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블레셋 망명생활을 이어가려 노력하였습니다.

### 1.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였습니다. (1-4 절)

1) 계속된 사울의 추격에 지친 다윗은 결국 사울의 손에 자신이 언젠가는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절)

☆ 다윗은 자기 \_\_\_\_\_ 사울의 손에 자신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1 절을 주목! = ‘다윗이 \_\_\_\_\_ 생각하기를... .. **좋으리이다** ....’

➔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껏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 삼상 23:14, ‘... ,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 삼상 22:5, 선지자 갓을 통해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

- 곧 유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 다윗은 이곳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하였음!

2) 그러나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에게 망명하였습니다.

☆ 이때 그를 따르던 600 명의 용사들이 함께 건너감!

- 당시 600 명이란 숫자는 20 세 이상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을 헤아린 것!

- 곧 그들에게 딸린 가족과 다윗에게 속한 가족들을 합하면, 대략 2,500~3,000 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 추측!

☆ 참고: 가드 왕 아기스

- ‘가드’는 블레셋의 5 대 도시 중 하나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예글론, 가드)

- 특히 이곳은 여호수아가 함락시키지 못한 블레셋의 가장 견고한 성 (수 11:22)

-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 성에 머무는 동안 알 수 없는 독종이 도시 전체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당함.

- 일찍이 다윗에게 허무한 죽임을 당한 골리앗이 가드 출신의 장수!

-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의 위협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 왔다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 미친 척하여 도망 나옴!

■ 그럼, 왜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게 되었을까요?

- ✧ 표면적인 이유: 이스라엘을 떠나면, 사울이 추격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1 절)
- ✧ 내면적인 이유?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사울의 추격에 다윗이 순간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결국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자라났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우리 안의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는 불신앙을 낳고, 그 불신앙은 결국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아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길뻔하는 위기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것을 알고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2. 가드로 망명한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임시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5-6 절)

1) 다윗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블레셋에 머물 수 있도록 지방의 한 성읍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5 절)

■ 5 절 주목 : ‘... ,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 ✧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로 번역했음. ( NIV, RSV)
  - 곧 ‘당신이 보기에, 내가 당신에게 좋게 보인다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이라 번역했다는 것!
  -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단순히 ‘아기스’를 찾아가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기보다는 ‘아기스’와 일종의 용병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
  - 그로 인해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적절히 요구할 수 있었다고 추측!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작은 성읍을 거처로 달라고 청했다는 것.
  - 이때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이용하여 사울을 대적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적으로 블레셋에 유리하게 이용할 도구로 판단했을 것이란 견해.

2)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시글락’ 이란 작은 성읍을 주었습니다. (6 절)

- ✧ ‘시글락’(Ziklaq)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 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성읍.
- ✧ 원래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으나(수 15:31),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로 넘어갔고(수 19:5), 이후 사사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었음.
- ✧ 학자들 중에는 당시 이 성읍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 (Keil, Fay).

■ 그럼 왜 다윗은 살기 좋은 수도 가드에 머물지 않고, 변두리 지방 성읍을 거처로 요구했을까?

☆ 2 가지 견해

① 신앙적 이유: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가드에 거주할 경우 자신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신앙과 사상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

② 정치적 이유:

- 가드에 거하면, ‘아기스’의 궁전에 자주 불려가게 될 것이고, 그럼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
- 가능한 ‘아기스’의 영향력이 먼 곳으로 가야 훗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

■ 여기서 주목할 것! 한가지! -> 이때부터 ‘시글락’은 유다에 속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 곧 하나님은 비록 나약하고 부족한 다윗의 결정과 행동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사실!

3) 다윗은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가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여기서 머뭇! (삼하 2:1-4)

3. 이때 다윗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여 진멸시켰습니다. (8-12 절)

1) 다윗이 공격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

☆ 그술 사람 : ‘그술’(Geshur) 은 ‘교랑’이란 의미로 추측.

- 저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중 하나.
- 저들은 아말렉 족속처럼 한 지역에 머물러 살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당시 일부는 요단동쪽 지방에, 다른 일부는 ‘시글락’ 인접지역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측.
-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위협했던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그술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녀는 갈릴리 인근 아람족속에 속한 그술 왕의 딸이었음.

☆ 기르스 사람: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애굽과 팔레스타인 국경에 거주하던 유목민이라 추측.

☆ 아말렉 사람.

-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딤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창 36:12)
- ‘아말렉 족속’은 그의 후손들로 이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저들이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게 될 것이라 말씀.
-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당시 아말렉 족속은 사울의 대군(21 만)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15:7,8), 이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명하셨으나, 사울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
- 그 후 애굽으로 피난한 저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금 세력을 규합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을 공격하며 양국의 골치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음. (Fay)

■ 그럼 다윗은 왜 저들을 공격하여 진멸시키려 했을까?

■ 두 가지 견해.

- ① 종교적/ 신앙적 관점에서 저들을 치는 것이 성전(聖戰)이라 생각하여 공격했을 것.
  - 8 절 주석: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 이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 (예: 수 4:19; 6:5; 8:11, etc.)
  - 따라서 저자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함으로써, 비록 다윗이 타국으로 도망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
- ②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
  - 우선 본문에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
  - 만약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이 종교적 목적으로 저들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과 재산도 반드시 진멸시켰어야 했다는 것!
  - 그러나 다윗은 가축과 재산은 진멸치 않았고, ‘아기스’에게 받치며, 그의 신뢰를 얻음!
  - 나아가 저자는 다윗이 사람들을 다 죽인 이유는 단순히 비밀 유지의 목적이었다고 11 절에서 언급했다는 사실!

2)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유다 네겍’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겍’과 ‘겐 사람의 네겍’을 공격하여 전리품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0 절)

- ✧ ‘유다 네겍’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의 인근 지역을 가리킴. (삼하 24:7).
- ✧ ‘여라무엘 사람의 네겍’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남쪽 변방 지역을 가리킴. (삼상 30:29).
- ✧ 참고로 ‘여라므엘’(Jerahmeel)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란 의미로, 이 사람은 유다의 손자이자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장자.
- ✧ ‘겐 사람의 네겍’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에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치려고 할 때, 겐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켰음.
- ✧ 곧 다윗이 언급한 이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음.

■ 그럼 왜 다윗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 ✧ 표면적인 이유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임
- ✧ 내면적/ 신앙적으로 시글론으로 내려온 다윗의 신앙이 그만큼 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거짓말은 그 동기가 어떠했던 간에 결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윗은 이런 거짓말로 아기스의 신뢰를 살 수는 있었으나 결국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쳐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더욱 더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2 절)

- ✧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었다고 착각하였음!

-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 중보기도 나눔.